

World Toilet

# 바르셀로나의 화장실



홍우산  
MBC다큐멘터리 작가

이제까지 가장 한국화장실종교 신봉자임 / MBC다큐멘터리 270여편, 방송대중 200만 시청  
저서: 일과일과목 '정보기', '프랑스의 문화 이야기', '지구촌 뒷골목 음식 한 끼', '가르시아 카르사다 이젠락', '스페인 문화의 이해'

나는 TGV를 버리고  
스페인 열차인 탈고(Talgo)로 갈아탔다.  
TGV에 비하면 탈고는 시설이 떨어진다.  
잘사는 프랑스와 그보다 못사는  
스페인의 국력의 차이가 실감나게 느껴진다.  
탈고를 타고 한 30분 달렸을까.  
기차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에 도착했다.

◀ 가우디의 대표작중의 하나인 카사밀라(개인주택)

**파**리에서 TGV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남 프랑스는 광활한 들판이다. 노년기 지형인 이 지역은 해발 50미터 정도의 야트막한 구릉이 좀 있을 뿐 꽃바구니를 얹어놓은 것 같은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프랑스는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불쑥 든다.

시속 230킬로의 TGV는 3시간 여 만에 프랑스 남부의 몽펠리에에 도착했다. 스페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기차를 갈아타야 한다.

나는 TGV를 버리고 스페인 열차인 탈고(Talgo)로 갈아탔다. TGV에 비하면 탈고는 시설이 떨어진다. 잘사는 프랑스와 그보다 못사는 스페인의 국력의 차이가 실감나게 느껴진다. 탈고를 타고 한 30분 달렸을까. 기차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에 도착했다.

기차가 도착하기 무섭게 완장을 탄 스페인 국경검문소 직원들이 올라탔다. 한데 웃기는 건 그들은 제복차림 아니다. 낡은, 그야말로 너털너털한 양복에 흰 와이셔츠를 아무렇게나 받쳐입고 검은 잉크로 휘갈겨 쓴 완장을 차고 있다. 마치 1940년대 스페인 내전시절의 레지스탕스 같다. 쿡, 쿡 웃음이 터져 나왔다. 검문소 직원이 나를 바라보더니 '코레?'하고 묻는다. 고개를 끄덕이자 패스포드를 보자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린다. 싱겁게 그냥 통과했다. 국경검문소를 제일 통과하기 쉬운 나라는 이탈리아이다. 검문소에 일단정지를 하고 패스포드를 꺼내려고 하면, 귀찮다는 듯이 엄지손가락으로 빨리 가라고 손짓한다. 한 번은 이탈리아 국경을 밤 12시쯤에 통과했는데 세관원이 발을 책상에 올려놓고 의자에서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클랙슨을 두 번 울렸더니 세관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별 미친 놈 다봤다는 듯이 빨리 가라는 표정을 지었다. 낙천적인 국민이어서 그런가, 뒤도 보지 않고 내뺐다.

반면에 독일의 국경검문소는 무지 까다롭다. 내가 몰고 있는 차의 실내는 물론 트렁크도 열어보고, 차 밑바닥까지 거울을 비쳐 살살히 훑어본다. 그리고 나서는 패스포트를 회수해서 본 청에 패스포트 조회까지 해본다. 스페인도 이탈리아 국민과 같은 라틴 민족이어 선가, 그냥 쉽게 통과시켜 주었다. 하나 재미있는 것은 탈고에 탄 기념으로 전 승객에게 음료수 한 개씩을 서비스하는 것이었다. 국경 통과기념으로 음료수를 주는 나라는 유럽의 국가 중에서 아마 스페인이 유일 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나는 바르셀로나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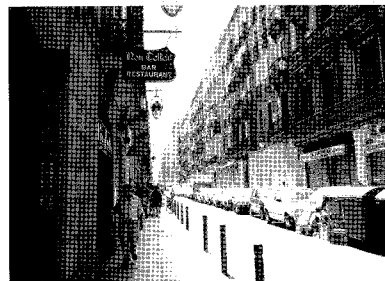
## 황영조가 금메달을 딴 도시, 바르셀로나.

바르셀로~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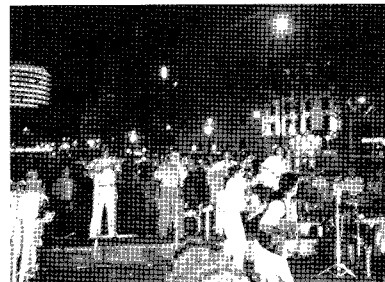
바르셀로나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다. 지난 92년 여기서 황



▲ 스페인 탈고(Talgo)열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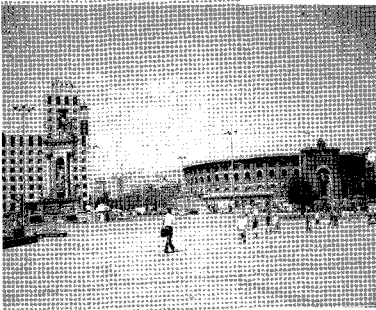
▲ 바르셀로나 피카소 박물관 앞 근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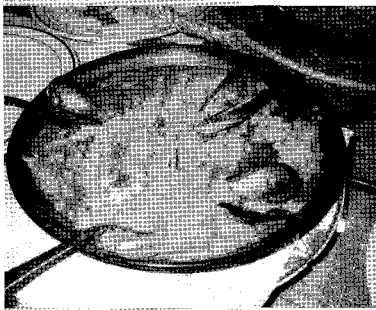
▲ 레알광장에서 연주하는 인디오들



93. 12. 7 일본에서 황영조선수와 함께 ▲



스페인 바르셀로나 투우장앞 ▲



바르셀로나의 명물 파에아 ▲

영조 선수가 바로 대한민국에 마라톤 금메달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1936년 베를린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두 번째의 금메달이다. 그러나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었으니 대한민국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황영조 선수가 최초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황영조는 이곳의 문주의 언덕을 넘어 메인 스타디움에 당당히 1위로 들어오므로서 한국 민을 열광시켰다. 2등은 일본의 모리시다 선수. 황영조와 모리시다는 메인 스타디움 3킬로 전방인 문주의 언덕까지 나란히 함께 뛰었다. 문주의 언덕을 오를 때는 모리시다 선수가 오히려 황영조를 제치고 앞섰다. 그 당시 TV중계를 지켜보던 4천만 국민은 일본이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손에 땀을 쥐었다. 그러나 문주의 언덕의 정상에 오르자 황영조는 모리시다 선수를 따돌리고 앞장서기 시작했다. 내리막길에서 황영조는 모리시다를 완전히 제치고 50미터, 100미터, 결국은 300미터까지 간격을 벌리면서 결국은 메인 스타디움에 1위로 들어섰다. 바로 그해 겨울 나는 황영조와 함께 일본으로 가서 모리시다 선수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금과 은을 놓고 싸웠던 두 선수에 관한 다큐멘타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큐슈 남부의 노베오카 마라톤 경기장에서 모리시다를 만났는데 그는 다리를 절면서 트랙을 가로질러 다가왔다. 어디 다쳤느냐고 물었더니 바르셀로나에서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고백했다. 그때 나는 굉장히 놀랐다. 올림픽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몸이 성치 않다니 마라톤이 보기보다 얼마나 격렬한 운동인가 느꼈기 때문이다. 모리시다는 문주의 언덕의 정상에 향해 뛰면서 바로 3미터 뒤에서 따라오던 황영조가 몹시 부담스러웠었다고 말했다. 그는 황영조를 완전히 제치기 위해 무리하게 스피트를 하는 바람에 문주의 언덕 정상에 도달했을 때는 완전히 힘이 빠졌다고 했다. 황영조에게 물어보니 그것은 영조의 작전이었다. 황영조는 뒤에서 모리시다를 계속 압박함으로써 그를 지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모리시다가 오버 페이스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작전은 맞아떨어졌다. 문주의 언덕 정상에 도착한 황영조는 모리시다가 지쳤다는 것을 느끼고 그를 추월해서 스피트를 해버렸다. 그때 모리시다는 마음속으로 제발 여기서 황영조가 차고 나가지 않기를 신에게 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조는 모리시대의 기대를 저버리고 바로 스피트를 했고, 결국은 그에게 금메달이 돌아갔다.

### 문주의 언덕에 서서

나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었던 문주의 언덕에 갔다. 문주의

언덕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지중해의 눈부신 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바르셀로나 시내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바닷바람이 상쾌하고, 햇살은 찬란하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다.

이 도시엔 자랑거리가 몇 개있다. 세계최고의 건축가로 꼽히는 가우디가 바로 이 도시에 많은 작품을 남겼다. 사그라다 패밀리아 성당과 구엘 저택이 바로 그의 대표작이다. 건축이 아니라 마치 옛가락처럼 주물러 터뜨려놓은, 자유분방함이 넘치는 것이 가우디 예술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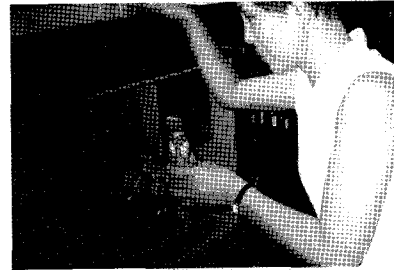
또 하나는 피카소 미술관이다. 이곳의 피카소 미술관은 그의 초기작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이다. 피카소는 이곳의 미술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14세 때부터 이 도시에 살았었다. 그런 연유로 해서 피카소 가족은 이 도시에 수많은 수백 점에 달하는 그의 초기 크로키 작품을 기증했다. 나는 가우디와 피카소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갔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도시의 가장 변화가인 레알 거리에 갔다. 이곳의 명물인 파에야를 먹기 위해서였다. 파에야는 프라이팬에 옥수수와 쌀, 새우와 홍합, 카레를 넣고 빨간 실고추를 넣고 국물이 자작자작하도록 끓인 음식이다. 맵고 짠것이 우리 한국사람 입맛에도 딱 맞다.

파에야를 시켜놓고 황영조의 금메달을 떠올리면서 이곳의 대표적인 맥주인 스텔라 생맥주를 한잔했다. 창 밖의 레알거리에는 수많은 파라솔이 쳐진 노천카페가 가득 들어서고 스페인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잘 생긴 여자들이 바로 스페인 여성이다. 금발에 옅은 코, 검은 눈, 늘씬한 자태는 가히 고풍적이다. 그녀들을 보면서 식사를 마쳤다. 그리고 레알광장으로 나서니, 이런 남미에서 온 인디오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관타라 메라, 아리오 관타라 메라'하고 우리 귀에도 익숙한 노래를 하고 있다. 아름다운 관타라의 아가씨라는 노래다. 인디오의 음악에 맞춰 잘 생긴 스페인 아가씨들 수백 명이 춤을 추고 있다. 정말 스스럼이 없다. 나도 그녀들 곁에서 같이 춤을 추었다. 밤 10시, 거리의 공연이 끝났다. 웬지 좀 허전하다. 다시 생맥주 집에 들러 2천CC쯤 스텔라 맥주를 마셨다.

어느덧 밤 11시. 이제는 호텔로 돌아갈 시간. 내가 투숙한 그랑더비 호텔은 10만원이라는 가격에 비해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있었다. 방은 크고 넓으며 수영장이 딸려있고, 종업원도 친절하기 이를 데 없다. 생맥주를 많이 마셔서 오줌보가 터질 듯하다. 화장실로 갔다. 피카소가 살았던 도시답게 타일의 색이 예술이다. 또한 시설에도 흠잡을 곳이 없다. 룸에 작은 바아를 마련해놓았는데 냉장고도 그냥 밖에 노출시킨 것이 티크 원목의 루바문을 달아 놓아서 불박이장처럼 만들었다. 잘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매우 세련된 사람들이다. 피카소가 괜히 나왔겠는가. 문화의 토양이 이 정도 되니까 세계적 거장들이 나오는 것이다.



▲ 바르셀로나 그랑데비호텔의 냉장고 (벽 매립형이다)



▲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레알광장에 있는 노천 파라솔 식사도 즐기고 술도 마실수 있다.



▲ 바르셀로나의 레스토랑